

준비된 믿음, 준비된 삶이어야 할 때가 이르렀다면

많은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 주의 백성이 되고, 당연히 천국 가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는 천국과 지옥으로 분명하게 갈린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믿음의 삶을 살아야만 하는 것이다(함2:4). 그 삶은 세상과 구별되어 이세상의 모든 욕망, 우상들을 버린 거룩한 삶(살전4:1-12, 계19:8), 항상 깨어있는 삶(마24:32-38, 25:1-13), 죄와 결별된 삶(대하29:5), 나를 내려놓고, 죽는 삶(갈2:20), 내가 아닌(엡2:3)주를 위한 삶((마6:22,23), 현존하는 하나님나라 안에서 주님과 동거 동락하는 삶(롬 14:17), 영혼구원의 삶(행1:8)을 말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가 믿음으로 사는 삶의 본질적인 내용들이다. 이 바탕은 회개와 순종과 성결과 거룩이다. 이와 같이 복음은 이 땅에서의 눈에 보이는 축복과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치열한 영적전쟁을 통하여 이 땅위에 하나님나라를 구현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이 사탄의 것으로 역경과 환란과 고난이 있다하더라도, 주의 백성은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나라에 거하여 성령이 주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능히 이를 이겨내어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고자하는 진정된 복이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은 주 앞에 설 준비된 삶을 살아야만 한다. 이에는 신앙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기본적인 2가지는 숙고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한다.

첫째로 심계명을 지키고 있는가하는 문제이라고 하겠다. 한 율법사가 주님을 시험하여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라고 질문하였을 때 주께서 그에게 역으로 질문하시며 기대하셨던 답이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눅10:25-28)이었고, 그렇게 답한 율법사에게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셨다. 주께서는 이 말씀을 율법이 아닌 사랑으로 지켜 행하라고(눅10:28)하신 것으로, 영생의 Key를 말한 것이다.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그리고 이웃에 대한 사랑의 가장 큰 계명으로 심계명을 뜻한다. 주께서 이 두 계명으로 요약하신 것이다. 이에 따라 심계명을 개혁주의자 John Calvin은 1-4계명을 대신사랑, 5-10계명을 대인사랑이라고 했다. 심계명은 율법적 문제가 아니라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이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사랑으로 살아가도록 안내하는 지침서이다(요15:10,13:34참조). 심계명의 정신은 사랑이다. 고로 사랑실천의 구체적인 행동방안인 것이다(요15:12,16 참조). 사도 바울과 요한이 말한 사랑의 근거도, 오늘날 우리의 삶, 선교의 근거도 여기에 있다. 심계명은 옛 언약이 아니라 지금도 유효하며 기독교 교리이기도 하다. 그런데 주를 믿는 다면사도 이를 놓치거나 드난시한다면 주님이 계산하시지 않을까 하는 문제이다.

둘째는 구약에 나오는 7절기이다. 이 절기들은 유대인이 아닌 하나님의 절기이며(레23장), 하나님께서 경륜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시간표로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완성의 Time Schedule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7절기를 3가지 측면에서 보아야 하는데 a. 유대인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나타낸 하나님의 구속사의 그림자적인 해석, b. 예수 그리스도의 측면으로 볼 때, 구속사가 완성과정에서 따라 나타나는 성취, c.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하는 은혜로서 실제적인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대한 내용으로, 이 모두가 하나로 연결되어 복음을 뜻한다고 보아도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절기의 성격을 종합하여 요약한다면 예수님의 초림과 십자가의 죽음과 보혈, 죄사함, 성도들의 구원의 역사를 이룬 유월절(레23:4,5,고전5:7), 주님의 3일간의 무덤기간을 통한 승리, 성도들의 회개와 철저한 항복과 성화를 이루는 무교절(레 23:6-8,고전5:7,8), 주님의 부활과 함께 성도들의 영적 변화와 새사람의 옷을 입고, 부활신앙을 뜻하는 초실절(레2:36-8,고전15:20), 주님의 승천과 성령의 임하심과 성령세례와 성령충만을 나타낸 오순절(출12:5-11,행2:1-4,고전12:13,계23:15-21)로 여기까지는 성취되어진 절기이며, 앞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절기로는 왕으로 오시는 주님의 재림과 성도의 휴거, 어린 양의 결혼으로 왕의 신부는 세마포를 입고(계19:8,9) 혼인잔치를 갖게 되는 나팔절(살전4:14-17, 계11:14-19,19:7-9,23:24), 이스라엘의 회개, 알곡과 가라지(심판)를 갈라서 심판과 회복이 있게 될 속죄절(마24:30,히9:12-14,계19:11-21), 천년왕국에서 주님과 함께 통치하게 되는 장막절(단9:24,마24:42-44,벘후2:9,계20:3-6)이다. 그리고 나중은 백보좌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새 예루살렘성에서 주와 함께 영생복락을 누리게 되는 하나님

의 시간표안에 있게 된다. 고로 주의 백성에게는 참 구원과 함께 7절기와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시간표가 소중하다. Mark Biltz 목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은 이에 맞추어져야 한다고 역설한다. 그런데 수많은 성도들과 현대교회들이 이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율법적인 것으로 알고 놓치고 사는 충격적인 현실이라는 점이다. 참 성도이라면 준비된 삶을 사는데 있어서 이를 결코 놓쳐서는 아니 될 부분이라고 하겠다. 이는 성경방법대로 왕의 신부가 되어 가는 과정의 계시인 것이다.

세상의 끝은 기근과 역경과 전염병(Pandemic)과 지진과 전쟁과 환란 속에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하였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래전 구약시대 때부터 이미 예언서와 하나님의 절기와 하나님의 시간표를 통하여 믿는 자들에게 모든 일들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준비케 하고 계셨다. 문제는 우리 자신들이다. 너무나 사탄의 것인 세상에 빠져 있어 혼돈속에 있는 것이다. 깨어 있어야 한다. 우리 모두는 진정 준비된 삶과 믿음위에 서 있는가를 점검하고, 각성하고, 바로 서야 하겠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아무리 큰 환란과 Pandemic과 같은 물리적 현상이 있다고 해도 이는 영적 전쟁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므로 영적 전쟁에서 패한다면 모든 것에 실패할 수가 있다. 그러므로 보이는 것들에 놀려서는 아니 되며, 환경을 물리쳐 이겨야만 한다. 그래야 억압하려는 사탄의 꾀계들이 피해 떠날 것이다. 주의 보혈이 항상 흘러가 충분한 것들이 틈타지 못하게 하고, 주의 보혈로 Pandemic도 녹아 없어지게 해야 하며, 당연한 현실에도 철저히 대처를 해야 한다. 이것이 승리할 수 있는 길이다. 담대함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주께 의지해서 나갈 때, 어떠한 것이라도 우리를 쓰러트리거나 이길 수 없게 된다. 우리는 영적전쟁에서 승리하여 새 예루살렘성으로 들어가야만 한다. 그렇기에 거룩하게 되어서 진정으로 주님안에 거하여 주님과 하나가 된냐에 따라 영원한 앞길이 결정되어지는 것이다(마3:6-11,7:10-13,사4:3,요15:5,6, 참조).

선교지의 COVID-19

최운섭
 열과 함께 폐렴증세가 있으셨지만 호전되고 많이 회복되었고, 현재 요양 중이십니다

정소남
 현재 정소남 선교사님은 미국에 거주하시며, 하바루스크 은혜 교회에 교인 중에 확진자가 2명 그리고 폐렴환자 4명이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강형민
 성도들중에 코로나에 감염된 가정이 5가정이며 숫자로는 25명이 감염이 되었고 그외 현재 증상이 있어서 자가격리하고 있는 가정이 4가정 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님은 다행히 열은 없으시지만 현재 냄새를 느끼지 못하며 마른 기침이 있으시다고 하는데, 키트가 부족하여서 병증이 심한 사람만 검사를 해준다고 합니다.

은혜 한인 교회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한 기도 제목

- 태국 박경덕 신경력 선교사**
1. 날마다 성령님을 따라 행하는 자가 되도록
 2. 버펄러이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며 예배하는 자들이 많아지도록
 3. 세명의 신학생들이 잘 훈련받고 신실한 사역자로 세워지도록
 4. 가족들이 건강하고 세월을 아끼는 삶을 살도록
 5. 첫째 아들 학교 전학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도록
- 파푸아뉴기니 남영미, 김운용 선교사**
1. 주님의 공훈과 은혜를 베푸사 코로나 바이러스를 속히 소멸시켜 주시고 달한 선교의 문이 다시 열려 모든 나라와 족속이 함께 마라나타를 외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기를.
 2. 동역해 주시는 교회와 동역자 분들을 축복해 주시고 주님의 날개 아래로 보호해 주시도록
 3. 늘 성령충만을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함을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하는 삶과 사역과 가정이 되도록
 4. 현지 성경 번역 조력자들을 위한 언어학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 김운용 선교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현지 성경 번역 조력자들도 모어를 잘 이해해서 성경번역을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번역을 할 수 있도록.
 5. 파푸아뉴기니 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성경번역 선교사들과도 협력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도록



러시아 썬 빼제르부르그 소식

-러시아 조경호 조명숙-

러시아 코로나 확진자가 세계3번째로 많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감사하게도저희와 교회 성도들은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특히 모스크바와 샹트는 코로나 확진자가 많아지고 있지만.. 경제와 생활에 타격이 너무 커서 봉쇄를 조금씩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부터는 1.5미터 거리두고 마스크와 장갑끼며 드리는 예배가 허락되었습니다. 저희는 지난주 부터 러시아인 예배를 교회에 모여 on& off line 으로 드렸고 한인예배는 계속하여 on line 예배를 드렸습니다. 아직 코로나가 잡히지 않은 상태라서 조심하며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이 상황이 빨리 지나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결취선

GMI 세계 선교 사역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청지기 가입 신청서)

성명(영문)	성명(한글)	출석교회 or 그룹	
주소		헌금번호	
<input type="checkbox"/> 월 \$30	<input type="checkbox"/> \$100	<input type="checkbox"/> 월 \$200 (후원이사)	
<input type="checkbox"/> 월 \$_____		<input type="checkbox"/> 직분	
자동이체 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체크해 주세요. <input type="checkbox"/>		E-mail	전화

GMI 청지기 회원 가입을 희망하시는 분은 위의 사항을 기입하셔서 헌금함에 넣어주시거나 청지기 선교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문의: 714-397-6624 gmi.steward@gmail.com

1645 W. Valencia Dr.Fullerton, CA 92833 | Tel. (714) 446-6200 Ext. 238

광고

1. Amazon.com을 통해 GMI 선교사를 후원할 수 있습니다. Amazon.com account가 있으신 분들은 smile.amazon.com 으로 로그인 하신 후, charitable organization 리스트에서 "Grace Korean Church (Fullerton)"를 찾아 설정하시면, 구입하는 금액의 0.5%가 선교후원금으로 적립되게 됩니다. <https://smile.amazon.com/ch/95-3861464>.

태국 선교소식

-태국 박경덕 신미선 선교사(선혼8기)-

교회 소식

버플리 교회는 4-5월 두달동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다 지난 6월 첫 주일에 교회에 모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6월 첫 주일은 저와 아내가 버플리교회에서 사역을 시작한 주일입니다. 저와 아내가 버플리교회에서 사역한 지가 6년이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모여 예배 드리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니 기쁨과 감격이 가득한 모습입니다. 주일에 교회 온 성도들 가정당 쌀 한포대씩 나누었습니다. 이번에 쌀은 쿤버이 가정에서 십일조한 헌금으로 구입했습니다. 쿤버이는 저희가 버플리교회와서 사역한지 두달쯤 지나서 온 가정입니다. 어머니인 쿤씨님이 먼저 오고 아들네외가 왔습니다. 그런데 5개월만에 감옥에 가게 되었습니다. 몇년전에 동업하는 분과 갈등을 겪다 충을 가져와 바닥에 충을 쏟았는데 이것이 살인미수가 되어 11년형을 받았습니. 그때 갓 태어난 아들 때문에 보석금을 주고 2년 정도 유예기간을 받았는데, 상대방에서 합의금을 많이 요구해 합의가 안되어 형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 가운데, 태국 국왕이 서거하고 새로운 국왕이 즉위하면서 특사가 이루어져서 4년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아내가 아이들을 돌보며 일을 하며 지냈는데 감옥에서 나온 후에 감옥에 가기 전에 일하던 곳에 가서 아내와 함께 일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방콕에서 열린 인카운터 1기에 쿤버이가 참석하여 은혜를 받았습니. 다. 수련회를 마치고 집에 가니 주인이 한해 풍년을 위한 제사를 지내는데, 쿤버이가 절 하는 것을 거부하자 주인은 화를 내며 농사를 망친다고 하며, 남아 있는 빛을 안 갖아도 되니 나가라고 했습니다. 사실, 빛 때문에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가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빛을 감지 않아도 된다고 해서 그곳을 나와 어머니가 일하는 곳으로 옮겨 같이 살면서 농사를 짓게 되었습니다. 어머니 쿤씨님이 몇년동안 혼자서 넓은 땅에 채소와 과일을 심어 재배했지만 늘 열매가 부실해서 가격을 잘 받지 못해 힘들었는데, 아들과 합친 후 이번에 심은 채소가 비싼 가격에 팔려 십일조를 몇 주전에 교회 재정을 담당하는 집사님에게 가져왔습니다. 쿤버이는 감옥에 있으면서 성경을 여러 번 읽고 여러가지 기술도 익혔고 나와서는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일에 모여 단체사진을 찍으면서 '목사님, 보고싶어요'라는 말을 하는 것을 들을 때 마음이 찡했습니다. 빨리 태국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릴길 기도 부탁드립니다.



가정 소식

5월 23일에 두 아들이 검정고시를 쳤고 합격했습니다. 둘째는 전교생이 십여 명인 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행정선생님 집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지와 거리가 너무 멀어 방학때가 아니면 만나기 힘들고 무엇보다 이슬람지역에 거주하다 보니 영적으로 많이 놀리는 것 같습니다. 교회도 멀고 교통수단도 별로 없어 신앙생활하기도 힘든 형편입니다. 이번에 8월에 학교를 옮기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가지 어려움이 많은데, 모든 문제가 잘 해결되어 기독교 학교로 옮길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턱에 혹이 생겨 제거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전신마취해서 수술해야 한다고 해서 좀 더 지켜보고 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셔서 수술하지 않고 혹이 사라지기를 기도부탁드립니다. 아내도 가슴에 난 혹이 자라서 조직검사를 했는데, 다행히 당장 수술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가슴과 갑상선에 있는 혹들도 사라지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나눔의 손길

-미국 백원일 선교사-

26일 2차방역 Team Covid19 Buster가 나바호지역 교회 목사님들과 Flagstaff 에있는 Hope Church 에서 만나 방역 교육 실시 후 방역장비(Sprayer)와 소독액과 Sanitizer, glove, Mask, Vitamin C 등 구호품도 전달하기 위하여 4시40분경 교회에서 모여서 Team Covid19 Busters는 Navajo Reservation을 향해 6시 정각 출발 하였습니다. 이후 도착하여 일교교회 목사님과 지역 지도자들에게 방역 교육 후 방역복 30벌, Sprayer 와 소독액, 체온 온도계, 마스크 10,000장, Sanitizer 20 Box, 라면, 쌀 등 구호품을 전달 하였습니다.



베네주엘라 사랑의 손길

-베네주엘라 김도현 강미애 선교사-

지난 주에는 빈민가 25가정에 나누어줄 음식과 (깨란, 쌀, 밀가루, 설탕, 식용유, 파스타 등) 각 가정의 아이들과 가족이 먹을 따뜻한 햄버거 150개를 만들어 들어갔습니다. 아이들에게 작은 학용품과 가방도 함께 나누어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하던지요. 요즘은 빈민가에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져서 들어가기가 더 힘들어졌지만 귀한 현지 동역자들이 음식과 물건을 들고 걸어다니며 잘 나누었습니다.



멕시코 사랑의 손길

-멕시코 이종식 선교사-

코로나로 인해 많은 것을 잃고 있는 사역지이나 그럼에도 아버지께 예배를 구제 통한 사랑을 전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올립니다. 주일예배를 4부로 광야교회에서 계속드리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준비 하니 주일 날 의자 30개를 내리고 펴고 접고 올리는 일이 재미 있습니다. 호르게 목사와 얄렘 전도사가 각 사역지에서 섬기고 있는데, 모든것이 기도와 후원으로 도우시는 목사님 기도 식구들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2주간에는 그동안 도네이션 받았던 작은 차들을 선교로 정비를 돕는 마약 재활원의 형제 도움으로 수리를 하여 호르게 목사와 얼마 전 결혼한 재활원 펠리페 전도사에게 각각 선물로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마음을 허락 하셔서 드려서 너무나 기쁜 마음이 충만 했습니다. 주말에는 먹거리가 부족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식음 선인장을 한봉지 따서 집으로 가져가도록 했으며, 격주로 10가정들이 돌아가며 따갑니다. 아마 토르티아와 구운 노팔을 먹을 것이며 10개의 식사가 될 것입니다. 켄 음식을 테카테에 해 반석 교회에 예배후 나누어 드렸는데, 받는 대로 나누어 주고 있으면 너무나 감사와 기쁨 그리고 사랑이 넘쳐납니다. 성경책을 지역에 분기 별로 나누며 하나니께서 모든 사역지와 일군들에게 더 많은 축복을 주실것을 믿습니다.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께 찬양을 올립니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

